

이탈리아 수련자들, 대통령궁에 파룬궁 박해 증식 위한 서명부 제출



▲ 대통령궁에 서명부를 제출하는 수련자들.

[명후이왕] 이탈리아 파룬따파 학회가 2023년 1월 26일 파룬궁 박해 증식을 위한 서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로마 대통령궁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탈리아 정부에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고, 수련자의 생체 장기적출을 중단하며, 국제조사의 허용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했다.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파룬궁수련자 대상 생체 장기적출에 관한 국제 조사를 촉구하도록 이탈리아 정부에 요청했다.

이탈리아 수련자들은 2019년에 이탈리아 정부에 첫 번째 서명부를 제출했다. 전 이탈리아 국회의원 엘리자베타 잠파루티와 상원의원 로베르토 람피는 청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1999년부터 중국에서 수십만 파룬궁수련자들이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공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 감금돼 수감됐다.

이탈리아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민들은 중공의 생체장기 적출 증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 전 국회의원 "생체장기 적출은 인류에 대한 폭력"

전 이탈리아 국회의원이자 유럽고문방지위원회(European Committee against Torture) 이탈리아 대표인 엘리자베타 잠파루티는 파룬궁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이탈리아는 사형집행 유예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공산당 정권이 파룬궁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만행을 여러 장소에서 제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선인 원칙을 따르는 이들 수련자에게서 적출한 모든 장기는 전 인류에 대한 유례없는 폭력입니다.”

■ 상원의원 “이탈리아는 파룬궁수련자 보호해야”

로베르토 람피 상원의원은 수련자들에게 말했다.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는 기정사실이며 심각하고 폭력적입니다. 이는 중국의 역사, 문화, 전통에 의해 부여된 중국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가 중국과 전 세계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탈리아 유럽의회 의원들, 중국 장기적출 규탄 결의안에 서명

많은 이탈리아 유럽의회 의원들이 몇 달 전 중국에서 발생하는 생체 장기적출 사건을 규탄하는 유럽의회 결의안[2022/2657(RSP)]에 서명했다. 이 결의안은 관련 국가기관에 이식학,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해 중국 기관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국으로의 장기이식 여행을 방지하고 중국을 관광하는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릴 것을 관광업계에 촉구했다.

2014년 이탈리아 특별위원회는 이탈리아 상원 인권위원회에 중국과의 장기이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재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러 차례 박해를 받은 조선족 파룬궁 수련생 안영희 한을 품고 세상 떠나

[명후이왕]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23년간 연길시 안영희(安英姬)는 여러 차례 불법적인 감금과 고문을 당해 지난해 12월 26일 향년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안영희, 1958년 3월 20일 생. 1994년 안씨는 행운스럽게 사부님께서 연길에서 친히 전수하시는 학습반에 참가했다. 당시에 그는 대법이 좋다고 느꼈으나 수련자의 표준에 도달하기에는 어렵다고 느껴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았다. 수련전 안씨의 건강은 문제가 많았다. 그는 엄중한 류풍습성관절염, 심장병, 안저출혈과 안내압증에 시달렸다. 체질이 약한데다 형제 중 유일한 남동생이 타살되면서 안씨의 심신은 더 큰 타격을 입었고 따라서 얼마 안되는 사이에 그의 머리는 백발로 변해 탈모증상이 심했다. 워낙 누이와 아우 사이가 좋았기에 안씨는 남동생의 죽음을 받아드리지 못해 정신은 붕괴될 직전에 이르렀고, 늘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또 공포감에 시달려 밤이면 외출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소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도 불행을 당할까봐 늘 두려워했다.

마침 삶이 고달프고 절망스러울 시점에 안영희는 생존을 위해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수련한지 한달만에 그의 모든 질병이 온데 간데 사라졌고 낙관적으로 변해갔다. 안씨를 잘 아는 사람들도 기적이라며 파룬궁을 열심히 하라고 고무했다.

하지만 1999년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고 안씨는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경찰이었던 안씨의 전남편은 위에서 가하는 “연루정책(株连政策)”고압하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이냐 아내냐”는 선택을 해야했다. 행복했던 가정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안씨는 수차례 국보대대, 노동교양소, 구치소, 세뇌반에 불법납치, 불법감금을 당했다. 그가 생전에 겪었던 고문 박해에는 전기봉 충격, 구타, 벌서기, 강제세뇌, 묶이기, 강제노동, 잠 못자게 하기, 음식물 강제 주입(灌食) 등등이 었다.

■ 장춘 헤이쭈이쯔(黑嘴子) 감옥에서 고문박해 받다

1999년 말, 2000년 1월에 안씨는 2번이나 북경으로 청원을 떠났고 매번마다 연길시 국보대대에 의해 납치됐다. 그후로부터 연길



▲ 중공박해로 목숨을 잃은 길림성 연변주 파룬궁 수련생 일부분 사진. 첫번째 줄: 왼쪽으로 부터 양중팡(杨忠芳), 김준걸(金俊杰), 박세호(朴世浩), 김영남(金永男), 지휘문(池辉文). 두번째 줄: 왼쪽으로 부터 호영강(郝迎强), 양홍권(杨洪权), 장경군(张庆军), 장숙현(张淑贤).

시공안국에서는 안씨를 중점인구로 낙인 찍었다.

2000년 10월, 안씨는 불법판결 1년 형을 처분 받았고, 장춘 헤이쭈이쯔(黑嘴子) 감옥에서 전기봉 충격, 구타, 벌서기, 강제세뇌, 강제노동 등 잔인한 고문박해를 받았다.

■ 연길시 국보대대에서 잔인한 박해를 받다

2006년 2월 28일 안영희는 모친집에서 “610”인원과 국보대대 경찰에 의해 납치 및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경찰은 TV, VCD, 사진기, 핸드폰, 컴퓨터와 1만 여원 현금 등 개인물품을 갈취해갔다. 연길시 국보대대에서 경찰은 안씨의 머리를 잡고 그의 몸을 힘껏 부딪히게 했고, 또 2박 3일을 잠 못 자게 박해했다.

■ 도문시 구치소에서 잔인한 박해를 받다

3월 2일 밤, 안씨는 도문시구치소로 이송됐다. 안씨는 단식투쟁으로 반박해를 하면서 여러차례 강제적인 음식물 주입(灌食) 박해를 당했다. 한번은 조선족 남성 경찰이 안씨를 협박하며 “너를 고통스럽게 하겠어!” 라고 말하고는 주입할 음식에 불명의 물체를 넣었다(주변에서 안씨에게 경찰이 음식에 흰색가루를 넣는 것을 보았다고 알려졌다). 음식물 주입을 마치자 안씨는 즉시 구토하고 설사하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눈 주변이 쪼여지는 느낌이 들었다.

◀ 2 면의 계속

연일간의 잔인한 박해를 당한 안 씨는 몸이 마비되면서 일어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명자(朴明子)는 딱딱한 구두를 신은채 그의 가슴을 향해 힘껏 발로 걷어찼다. 안 씨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고 숨도 쉬기 어려워 했다. 함께 수감된 사람들마저 당황하며 줄곧 안 씨에게 “괜찮아요? 이 곳을 차면 죽을 수 있어요.”라며 걱정했다.

구치소에서는 안영희를 진일보 박해하기 위해 마비상태가 된 그를 창가 밑에 눕혔고 아침이든 밤이든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맞게 했다. 매일 바람막이에 누워있었기에 안 씨는 추울때면 몸이 뽀뽀얼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원래 박해로 마비된 몸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설상가상이 됐다. 나중에 집으로 풀려났어도 바람만 맞으면 추위를 느껴 몸에 여기저기 뽀루지처럼 돌아났고, 다리도 순간순간 고통을 느꼈다.

도문시 안산(安山) 구치소에서 안 씨는 생필품을 사용할 권리도 박탈당했다. 구치소 악경은 그를 칫솔로 이를 닦지 못하게 했고, 빗으로 머리를 빗지 못하게 했으며,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매일 인격에 대한 모욕과 욕설을 일상으로 견뎌야 했다. 당시 도문시 안산구치소 소장 사오잔밍(邵战明)은 이미 악보를 받아 사망했다.

안 씨는 52 일간 비인간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생

명이 위독해졌고, 결국 경찰은 책임을 감당할까봐 두려워 그제야 안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 연길시 세뇌반에서 고문박해 받다

2012년 7월 1일, 안영희는 출근하는 곳에서 연길시 국보대대 인원 정철수(郑哲洙), 김성철(金成哲), “610”인원에 의해 납치돼 연길시 세뇌반으로 끌려갔다.

세뇌반에서 안 씨는 강제로 영상과 “강의”를 시청해야 했고, 방교 인원들이 강제로 주입하는 거짓말과 각종 고문박해를 받았다. 그는 긴시간 밤낮으로 “벌서기”를 했으며, 양손은 창살에 수감으로 채워졌기에 손 등이 통통 부었다. 또 악인은 안 씨의 두 다리를 가부좌 자세로 고정하고 두 팔을 등 뒤로 돌려 머리, 다리를 뽀뽀 묶었는데 안 씨는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1박 1일 간 묶여있었다. 안 씨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박해도 받았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99년 7월 부터 2019년 까지, 조선족 파룬궁 수련생이 중공에 의해 납치된 총 인수는 345명, 강제로 “세뇌반”에 끌려간 파룬궁 수련생은 적어도 59명, 불법 판결을 받은 조선족 파룬궁 수련생은 적어도 99명, 적어도 46명이 불법판결에서 1년_14년 형을 선고 받았고, 또 7명이 실종됐으며, 53명이 박해로 목숨을 잃었다.



▲ 고문재연: 차례대로 전기봉 충격 가하기,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구타 하기, 가부좌 자세로 묶기.

하늘은 왜 중공을 멸하려 하는가 ?

[밍후이왕]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는 것은 중공이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되게 하고 사람 자신이 나빠지는 과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천리에 반하여 스스로 하늘의 이치보다 높다고 자부한다. 예로부터 중국 역대 시대에는 모두 하늘을 신앙했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부효자효(父孝子孝)

등의 도덕의 근원은 하늘과 천리의 규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늘과 천리는 중국 전통 최고의 신앙으로, 어느 정권도 감히 하늘을 거스르지 못했다. 황제의 신분이 아무리 높다해도 하늘의 아들(천제의 아들)일 뿐이다. 현대 민주 체제의 정당들도 모두 하늘, 신, 천리의 아래에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그



러나 공산당은 당을 진리라고 선전하면서 천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3 년 간 전염병으로 4~5 억 사망 , 경찰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어”

■ “마을마다 죽고 있어요 , 그들을 구해주세요 .”

천위안 (가명) 이라는 이 경찰은 자원봉사자 장 씨로부터 진상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다 . 진상을 들은 후 그는 탈당에 동의했다 .

장 씨가 가족들에게도 탈퇴하려고 권하자 그는 오열하며 말했다 . “다 죽었습니다 . 그들은 작은 지방 도시 시골 마을에 있었고 그곳에는 10 여 개 마을이 있는데 집집마다 온 가족이 다 죽고 마을마다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 며칠 전 4500 명이 죽었고 지금도 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현지 보도를 읽었습니다 . 그들을 구해주세요 .”

장 씨는 “어서 고향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 그들에게 스스로 구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라고 다급히 말했다 .

천위안은 “네 , 저에게 전화번호는 많지만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그러고는 장 씨에게 전화번호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

장 씨는 말했다 . “처음 무한에서 전염병 진상을 숨겼을 때 인근 교외 마을 촌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문과 창문을 판자로 단단히 못 박아 봉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 촌장은 아내가 감염됐는데 죽으면 다른 여덟 식구도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잇달아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

“그래서 촌장에게 삼퇴 (중공의 3 대 조직인 공산당 , 공청단 , 소선대 탈퇴) 와 9 자진언을 염하는 비결을 알려드렸더니 그는 흥분하며 말했어요 . ‘아주머니 , 제게 남은 것은 당신이 알려주신 이 지푸라기 하나뿐이니 어떤 말씀이든 다 들겠습니다 .’ 온 가족이 삼퇴했고 병이 위중한 부인은 처음

[밍후이왕] 2022 년 말 중공 병독이 창궐했을 당시 산동성의 한 경찰관은 해외 탈당 자원봉사자의 전화를 받았다 . 그는 “여기는 마을마다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그들을 구해주세요 !”라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

에는 염할 수 없었기에 온 가족이 부인 옆에 서서 20 분 이상 함께 염해줬고 , 그녀도 울면서 천천히 소리 내 염했는데 이후 더 높은 소리로 염할 수 있었고 결국 전염병이 나왔어요 . 이 비결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 어떻게든 빨리 이 정보를 가족들에게 알려드려 동네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을 구하세요 .”

천위안은 “알았습니다 . 전화번호를 좀 더 찾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 3 년 간 전염병으로 4~5 억 명이 사망했다는 것 , “우리는 믿어요 .”

이어 천위안은 장 씨가 들려준 파룬따파 (法輪大法 ,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 (李洪志) 사부님의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조용히 들었다 .

또한 리홍쯔 사부님께서 지난 3 년 간 중국에서 전염병으로 4 억 명이 사망했으며 이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5 억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실도 그에게 전했다 .

그는 “저는 믿습니다 . 우리 여기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 “여경에게 전화해 악행을 저지해주세요”

장 씨가 수련을 포기하지 않고 진상을 꾸준히 전하는 수련자가 박해받고 생체 장기적출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천위안은 말했

다 . “수련자들이 모두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파룬궁을 박해한 내부 범죄를 폭로하겠습니다 . 우리 이곳 여경 두 명은 매우 변태적인데 , 매우 음험한 수법으로 여성 수련자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 그녀들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드릴 테니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충고해주세요 . 어제도 수련자 10 여 명을 납치해왔습니다 .”

“이 두 여경은 남자 경찰보다 훨씬 더 변태적입니다 . 여성 수련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채 양손을 창살에 수갑으로 채운 뒤 전기봉으로 가슴과 음부에 전기충격을 가하는 잔인한 성고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 “잘못을 뉘우치는 파출소장을 살려주세요”

리홍쯔 사부님께서 전염병 초기인 2020 년 3 월 19 일 , ‘이성’이라는 경문에서 경고하셨다 . “이런 역병은 목적이 있으며 , 목표를 가지고 온 것이다 . 그것은 사당분자 (邪黨份子) 및 중공사당 (中共邪黨) 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태하러 온 것이다 .”

대화 중에 천위안은 말했다 . “파출소장인 제 동창도 구해주세요 . 그는 파룬궁을 완고하게 박해한 사람이지만 최근 마음이 흔들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최근 그의 딸이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